

기도의 달
선교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February 27,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3번 - 시편 23편 찬 송 / 324장 -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 4절 후렴) (통일찬송 360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527장 -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통일찬송 313장) 찬 송 / 510장 - 하나님의 진리 등대 (통일찬송 276장) 봉 헌 / 박진성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출애굽기 7:1-13 타산지석: 바로의 완악한 마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183장 - 빈 들에 마른 풀같이 (통일찬송 172장)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1:10-1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한 해의 계획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으십시오.
- 선교주일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만남과 나눔의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사순절 새벽집회 수요일(3/2)부터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 감사와 은혜의 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 12주 사역훈련 안수집사 교육이 계속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금요 찬양예배 안내 3월부터 금요 찬양예배도 교회에서 드립니다.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1월 한달 예배 후 새해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니다.
- ▶ 2, 3월의 사역 - 선교주일(27) 만남과 나눔 주간(27-3/5)
사순절(3/2-4/14)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3/6-12)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3/13-19) 선교주간(3/20-26)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2/27	3/6	3/13	3/20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운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2/27	3/6	3/13	3/20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2월		3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 / 출애굽기 6:2-13**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현실을 마주했다. 이스라엘은 노동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려고 했다. 꿈을 잠시 꾸나 작은 현실의 벽 앞에 모든 꿈을 내려놓고, 현실에 안주하려 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았다.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변했다. 혹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낙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괴로운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타락 이후 죄악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타산지석: 바로의 완악한 마음 / 출애굽기 7:1-13

민족들의 대립은 곧 각자 섬기는 신들 사이의 힘겨루기였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으려면?

-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자.

-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듣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온순한 마음을 갖자.

탁산지식: 바로의 완악한 마음 / 출애굽기 7:1-13

바로는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노예인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라.’고 말한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도, 바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긴다. 바로의 박사와 마술사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 충고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 사실, 경쟁사회에서 성공려면 굳은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듣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성공지상주의에 좌우되는 이유이다. 그러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만을 고집하는 완악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어떤 이유인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로가 완악하고 고집에 사로잡혔다. 둘째, 많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의 경고대로,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하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다. 영의 양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넷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아 강박한 사람이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사람의 마음이 매우 완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문제를 인정할 때, 해결점을 찾게 된다. 가장 거짓 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완악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둘째, 가르침을 받아야한다. 성령님의 교훈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해야한다. 나아가 공동체를 통해 서로에게 배워야한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당대 최고의 문명 이집트의 지배자 바로는 스스로를 최고라고 믿고 교만했다. 그러니 초라한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아무 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자. 어제보다 지금 더 겸손한 교회와 성도가 되자. 당신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대로 순종하자. 듣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온순한 마음을 가지도록 애쓰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기도 한 이유?

특별하거나 대단한 기도꾼이어서가 아니었다.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어서였다.

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다이어트 안 하면 죽는다고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신체 나이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나도 놀란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헬스클럽에 등록한다.

일 년 치 회비를 내고 당장 운동을 시작한다. 그날 밤 허리가 아프다. 무릎도 삐걱거리는 느낌이고 팔, 다리, 목, 관절들이 다 빠근하다. 파스를 찾아 뒤척거리다가 좀 늦게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또 8시다!

내 얘기는 아니지만 남 얘기 같지도 않은 다이어트 실패담이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은 다이어트와 닮았다. 다이어트만큼이나 기도 역시 꼭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도는 습관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습관화하려고 기도 책도 사서 읽는다.

특별새벽기도 같은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루 이틀 정도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또 아침 8시다.

얼마 전 “헬스클럽이 돈 버는 진짜 이유”라는 글을 읽으며 깔깔댔다. 특히 공감한 부분은 ‘동기의 부재’였다. 다이어트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건강해야만 하는 이유가 별로 찼하지 않아서다. 운동을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라면 동기 부족이다.

단적 예로,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당신이 똥똥해서 싫다”라고 하며 헤어지자고 했든지, 지난 10년간 실패하던 사업이 이제 막 궤도에 올랐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졌든지, 한 달 안에 정해진 몸무게를 빼면 블록버스터 영화에 주연으로 캐스팅될 수 있다든지 이런 동기가 필요하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를 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가끔은 기도할 수 있지만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반복과 지속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찼한 동기가 없어서다. 진짜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서다.

나의 기도 스승인 어머니는 홀로 남매를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여자가 혼자서 가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오늘날도 힘들지만 1970년대는 더했다.

그녀는 아침에는 파출부였고, 낮에는 식당 배달원, 밤에는 화장실 청소부였다. 그러면서 살림도 했다. 잘 수 있는 시간은 4시간도 채 안 되었다. 그렇게 살아도 월세 한 번 제때 낼 수 없었다.

그런데 기도했다. 아니, ‘그래서’ 기도했다. 말문이 터지기 전부터 봐왔다. 어머니가 원래 특별하거나 대단한 기도꾼이어서가 아니었다.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어서였다. 죽을 것 같은 생활고와 살려야 하는 자식들 때문 이었다.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기도했다. 그녀는 동기가 확실했다.

어머니의 삶은 죽음이 내리찍는 사막 같았다. 혼자라면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들이 있어서 살아야만 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의 생명도 내줄 사랑이 있었다. 거기서 ‘지키는 기도’의 샘이 터졌다.

덕분에 자녀들은 영적 오아시스에 풍덩 잠겨 안전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로 지키셨다(요 17:1-26). 그분은 제자들을 기도로 뽑으셨고, 기도로 이끄셨으며, 기도로 보내셨다(막 6:32-46, 눅 6:12,13, 요 17:18). 사랑 때문이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도로 지키셨다(요 17:26).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롬 8:26,27). 그러기에 지키는 기도의 원류는 예수님이시다.

기도 이벤트는 쉽다. 그러나 기도 습관화는 어렵다. 그러려면 반복해야 한다. 한두 번 빼먹는 기도는 습관 만들기의 적이다. 지속성이 습관화에 비례한다.

여기서 동기가 작용한다. 미적지근한 동기는 '퐁당퐁당 기도'(빼먹는 기도)를 만든다. 지속하려면 동기가 확실하고 뜨거워야 한다.

예수님의 지키는 기도로 제자들이 바뀌었고, 그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었다(행 24:5). 내 어머니는 지키는 기도로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었다.

가끔 하는 기도나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적당히 기도해도 되는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이란 없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그분과 같은 언행을 요구한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 처럼 사는 걸 의미한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정상' 범주에 넣기 힘들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고후 6:6,7).

크리스천은 평균 범주에 들지 않는 '비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정의된다(고후 6:8-10).

세상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크리스천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상' 영역에서 살아간다. 그들의 다른 이름은 '이름뿐인 크리스천', 혹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다.

당위성과 열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반복할 수준의 동기가 부족하다. 그런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하고 뜨거운 인식이다.

'기도가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매번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충 기도생활을 하다가는 영성도 인생도 대충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름뿐인 신앙인의 대열에 들어가 그럭저럭 삶을 마무리할 것이다. 적당한 수준의 기도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알면 당신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송준기, 『지키는 기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익숙함으로 깨어 있으라.”

권근에서 4차 2강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